

하늘나라에는 시간도 없고 태양빛도 없다

뜨거운 불의 세계인 천국은 죄인에게는 지옥이 된다

시간이 있는 세상은 마귀 세상이니 것이 올시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세상은 하늘 나라예요.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는 마귀의 빛도 없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겠지요? 마귀 세상이 없어지게 되면 태양도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올시다. 그것이 격암유룩에도 쓰여 있고 또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어요.

마귀를 전멸시키려고 오는 그러한 구세주가 온다면 마귀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겠지요? 마귀 세상이 종료되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올시다. 그때에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이 올시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이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세상인 것이 올시다.

마귀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빛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태양의 몇 십 배의 빛이 비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그대로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강한 빛인 것이 올시다. 그 빛은 하나의 불인데 그 불은 마귀를 뜨겁게만 하고, 죄가 있는 사람도 뜨거워져 못 견디는 영원무궁토록 필멸 받는 그러한 불인 것이 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자는 하늘나라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를 소멸시키는, 마귀가 그대로 영원무

궁토록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 올시다.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죄가 손뚱만치도 있으면 그는 영원무궁토록 필멸 받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올시다.

인간 세계의 형벌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 세상에서 육중 생활하는 것은 그건 호텔이에요. 호텔에 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라는 곳은 숨을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 그 몸을 옮겨놔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불덩어리의 세계예요. 철공장에 가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쇠물이 바글바글 끓는데 거기에 새로운 쇠덩어리나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금세 불덩어리로 화해지는, 쇠물로 화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불덩어리 속에 매뚜기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거기에 빠지는 순간 그냥 바글바글 타서 순간적으로 쇠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나 죄인도 죽지 않는 곳, 천당

마귀나 죄인들은 불덩어리 속에 그대로 필멸 하면서 쇠물처럼 녹는 것이 아니고 그 형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무궁토록 필멸 받는 곳이 지옥인 것이 올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천당이 지옥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천당을 건설하려 왔기 때문에 천당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집인고로 하나님만 사는 곳이지, 마귀나 죄인들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이 필멸 받고 영원무궁토록 형벌을 받는 곳인 것이 올시다.



구세주 조희성님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구세주는 한 생명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이 올시다. 격암유룩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구세주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중살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육중살이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육중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사람이 7년 동안 육중살이를 한 거지, 무슨 죄가 있어서 육중살이를 한 게 아니예요.

만법전에 7년 육고 예언되어 있다

그와 같이 이제그대로 격암유룩에도 쓰여 있는가 하면 만법전에 이 사람이 7

년 동안 징역을 살 것이 쓰여 있어요. 구세주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7년 동안 그러한 징역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징역을 산 거지, 그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징역을 산 것이 아니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육중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어요.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7년 동안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중살이 하도록 예정된 사람인고로 예정이 되어 있는고로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석방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육중살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려면 하나님 만들어야겠지요? 하나님 만들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죽여버려야 돼요. 그

것이 보통 일이 아니예요.

죄를 씻어주는 세척제

이 사람이 7년 동안 징역을 받은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예요. 7년 동안 징역살이하면서 그 마귀들을 100%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던 거예요. 격암유룩에는 정도령의 능력이 95년도부터는 원자와 같이 무력 무력 능력이 지란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아니면 세계 인류를 다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세계 인류 가운데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면 그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없는 큰 죄를 다 씻어내야 되고, 죄의 마귀의 신을 죽여야 되게 되어 있는고로 그 마귀를 죽이고 없애버리고 닦아내야 뻥뻥까지도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다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씻어내려면 이 사람이 씻어내는 비누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요즘에 비누가 발달해 가지고 옛날 비누와 달리 아주 세척이 잘 되는 비누가 있겠지요? 그와 같이 죄를 씻어내고 죄가 되는 마귀를 죽이고 마귀에게 오염된 뼈까지도 씻어낼 수 있는,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100% 죄를 씻었다가 되는고로,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그 마귀를 죽여도 죄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꼭 차게 들어와야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게 되어 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지고 수억 천만 개를 만들어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뭐 줄 몰랐겠지요? 그러나 옛날에 전도관에서는 죄가 핏속에 있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전도관 식구들이 신기하게 여겼겠지요? 죄가 핏속에 있다고 말만 했지, 죄가 바로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말했어? 말을 못 했겠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영모님도 몰랐어요. 해외에 간지도 몰랐고 바로 완성자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완성자가 그래서 구세주이지, 죄의 정체를 바로 아니냐 그 죄의 정체가 되는 마귀의 영을 바로 똑바로 아니냐 찍어서 죽일 수도 있고 또 씻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걸 몰라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야 뻥뻥까지도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다 씻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조그맣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두고 보세요. 전 세계가 우리 승리제단을 향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지고 수억천만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 쓰러지나 보다 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망하겠어? 성경에도 6000년 동안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다가 7000년 대에 가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때가 다 되었겠지요? 마귀가 암만 유포를 하고 갖은 지랄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 암만 해봐도 마귀는 전부 전멸돼요.*

2000년 10월 31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장 이삭의 하나님》

(10)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이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시다

(10)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이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시다

이삭이 110세에 하나님을 섬기는 머느리를 보게 되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머느리가 곧 에서의 아내 마할라이었습니니다.

이삭이 생각하기를, 만일 에서가 이번에는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동족의 여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기에 이제 정자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삭 자신이 에서에 정자축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으로 봤습니니다. 이러한 생각은 순전히 이삭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는 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넌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완고하게 외면하고 그의 심중에는 큰 자가 되는 에서에 정자상속을 하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화로 인해 눈이 침침해져 가는 이삭을 방치 하셨습니다. 이삭이 137세 되는 어느 날, 그가 완전히 눈이 멀어져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자, 그는 스스로 죽을 날이 다 된 줄 알고 속단하였습니다. 이제 자기를 돌보아 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만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니다.

"에서야, 나는 이제 매우 늙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 나이가 되었다. 에서야, 활과 창을 들고 나가 내가 늘 좋아하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어다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복을 빌어 주마."

때마침 리브가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 이삭을 위하여 죽을 썰다가 가져가는데, 방문 밖에서 이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에서는 활과 창을 들고 숲속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가 에서에겐 한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넌 내 말대로 빨리 서둘러서 해라. 빨리 새끼 염소를 끌고 오너라.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테니까." 하고 재촉하였습니다.

야곱은 들에 나가 염소 떼에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를 골라서 끌고 왔습니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식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입에 맞도록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별미를 네 아버지가 가져다드려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 어디 손이나 만져보자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루카 조르다노(Luca Giordano, 1634-1705) 작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되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리브가는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야곱에게 입히고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씌우고 별미와 떡을 차린 음식상을 들려 이삭에게 보냈습니니다.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이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끌어들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버지." 하고 야곱이 은근히 불렀습니니다. "넌 누구지?" 하고 눈이 먼 아버지가 되 물었습니다.

"저는 만일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차려 왔습니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슴요리를 잡수시고 나를 위하여 빌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무래도 의심쩍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벌써 사슴을 해서 이렇게도 빨리 요리를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사슴을 열른 잡도록 하여 주셨습니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나, 이삭은 여전히 미심쩍어하면서 "야, 목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에서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자구나."

"예, 아버지의 머리맡에 저가 왔습니니다."

1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서로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는 목소리까지 똑 빼닮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닌 늙으신 아버지가 분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7장 22절에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음성임을 분별할 정도였다면 야곱의 손목에 두른 염소털가죽은 더 쉽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어디 손이나 만져보자.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그런데 에서 너의 털이 평소보다 열 배나 더 자란 것 같구나!"

이제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삭은 에서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넉살맞게 야곱을 떠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의구심을 떨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네가 형 에서가 맞느냐?'는 식으로 묻기에,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예, 저는 에서가 틀림이 없습니니다."

이쯤 되면 이삭이 자신을 속이려 드는 아들야곱에게 '왜, 나를 속이려 드느냐?'고 꾸짖을 만도 하였습니다. 야곱도 분명히 아버지 이삭께서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나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실 거야! 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제대로 읽었지만, 어머니 리브가께서 하나님의 태몽계시를 확신하면서 '네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저주를 받게 되면 어머니에게로 돌리리나'라고까지 하신 말씀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젤라